

자산관리도 디지털시대... AI로 고객분석해 종목 추천

증권가의 디지털혁신

⑤ 삼성증권

자산규모 상관없이 대중화 노력 '앱팝' 애플용 간편하게 정보 확인

고객별 투자패턴·선호종목 등 분석 주가흐름 분석 7가지 종목 선별 3개월 간 정확도 76% 등락 예측

삼성증권이 디지털 혁신에 나섰다.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대형 정보통신(IT) 기업이 막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업까지 뛰어들어온 상황에서 삼성증권은 디지털 자산관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를 강화해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고객층을 넓혀 대중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 핵심은 디지털 자산, 간편하게 모바일로

삼성증권은 최대 강점으로 평가받는 자산관리서비스를 디지털 시장에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성



삼성증권 모바일 앱 앱팝.

공적으로 온라인에서 자산관리가 이뤄진다면 시간이 없지만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은 전문 직종 종사자나 직장인 고객을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라 계산이다.

이는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와의 의지

와도 직결된다. 장 대표는 올해 3월 온라인 주식거래를 넘어 디지털 자산관리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관련 사업을 강화해 왔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리테일 부문에서 디지털 자산관리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선전포고할 정도다. 지난 달 디지털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의 사무실 이전과 함께 해당 직원들의 사무공간을 디지털 산업에 맞춰 '모바일 오피스' 형태로 구성한 것 역시 그러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자산관리의 첫 번째로 자사의 모바일 앱 앱팝(mPOP)을 활용했다. 삼성증권 이용 고객들은 앱을 활용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투자정보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고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종목을 추천해 준다.

여기에는 특별한 시스템이 적용됐다. 삼성증권과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한 '고객별 예상 선호 종목의 제공 방법과 시스템'이다. 삼성증권 AI가 해당 고객의 기본정보와 최근 1년간의 투자 패턴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여기에 투자성향이 유사한 다

른 고객들의 선호종목 정보를 추가로 반영해 고객이 좋아할 만한 종목을 도출한다.

이어 AI 스스로 고객의 선호에 맞춰 선정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기술적 지표 등을 스스로 분석해 학습하게 된다. 투자했을 때 일주일 후 주가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7가지 종목을 선별해 보여준다.

효과는 뚜렷했다. 실제로 AI를 활용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개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76.2%의 높은 정확도로 각 주가의 등락을 예측했다.

전계완 삼성증권 상무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차별화된 디지털자산관리 플랫폼을 완성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증권플러스 비상장', 장외주식까지 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최근 출범했다. 장내 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주식의 매물 등록부터 거래까지 지원하는 플랫폼은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처음이다. 삼성증권과 답서지, 블록체인 기업 두나무

가 협력했다.

삼성증권은 실제 매물을 확인하고 안전거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투자자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허위 매물에 대한 위험부담을 덜 수 있다. 유망한 비상장 기업 주식을 유통 마진 없이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이다.

권용수 삼성증권 디지털채널본부장은 "비상장 주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비상장 주식 시장은 정보 비대칭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플랫폼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플랫폼 출시의 목적이 수익성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장에 들어가 수수료를 챙기려는 목적이 아니다"며 "자본의 흐름이 비상장 주식에 흘러 들어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자본시장 안에서의 순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상장 주식을 주로 유통했던 증권사지만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도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실적개선 기대감... 코스피 상승 바람 상장사 3분기 실적공시 마감 1시간 늦춘다

주간 증시전망

내년 기업이익 턴어라운드 기대 美·中 무역협상도 낙관론 우세

이번 주(11~15일) 코스피는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다. 3분기 실적시즌이 끝나가며 내년 기업이익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를 부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낙관론이 우세하다. 주요 증권사가 예상한 이번주 코스피지수 예상치는 NH투자증권이 2120~2200선, 하나금융투자가 2130~2180선 등이다. 지난 8일 코스피지수는 2137.23에 장

을 마감했다. 전 주(2100.20)와 비교했을 때 37.03 포인트(1.76%) 오른 수치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2100선을 훌쩍 넘어섰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739억원, 기관이 2338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적이다. 3분기 어닝시즌이 끝나가며 내년 기업 이익이 턴어라운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시가총액 기준 약 74%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마쳤다. 12월 결산법인의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송태화기자 alvin@

수능으로 주식시장 개·폐장 늦춰

금융감독원이 오는 14일 상장사 3분기 실적 공시 접수 마감시간을 1시간 늘린다. 장 마감 후 공시가 몰려 사이트 접속이 마비될 것을 우려해서다. 기업들은 공시 부담을 다소 덜어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3분기 실적발표 마감일인 14일, 접수 마감시간을 7시까지로 1시간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주식시장 개·폐장 시간이 1시간 늦춰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장이 끝난 후 실적을 공시하는 것을 선호한다. 특별히 실적이 좋지 않은 이상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해서다. 통상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공시가 밀려드는 이유다.

최근에는 '신(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영향으로 회계법인의 의

부감사가 간간해지면서 감사보고서 자체가 공시 마감 시간 직전에 나오는 경우도 많다.

한 코스닥 IR 담당자는 "우리가 아무리 실적을 일찍 발표하고 싶어도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늦게 준다"면서 "이 보고서가 다시 회사 대표의 확인, 거래소 승인, 금감원 승인까지 받으면 6시 마감시간을 지키는 것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해 8월 14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투가 반기보고서 마감을 앞두고 장시간 마비상태가 지속된 바 있다. 접속자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선 영향이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웹크롤링이라는 데이터를 대량 긁어가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다량의 트래픽이 발생한 것 같다"며 "문제를 신속히 파악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

혔지만 올해 8월에도 일시적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진 상태다.

제출인이 마감 시간 내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실적공시 마감 시간을 6시에서 7시로 늘렸다. 시간을 늘리지 않으면 기업의 공시가 4시 반에서 6시 사이에 과도하게 몰리게 되고, 또 다시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접수 시작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전 7시 반부터 가능하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과 회계법인이 오후 6시 마감을 기준으로 제출에 서둘러줄 것을 바라고 있다. 공시 마감 시간을 늦춘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이유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상한제 발표 후 전국 7000여 가구 붓물

분양캘린더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7000여 가구가 분양을 기다린다. 전국 14곳에서 청약접수가 이뤄지고, 견본주택 개관도 9곳에 이른다.

둘째 주 견본주택 개관은 주로 수도권에서 이뤄지며 서울 '힐스테이트 흥은 포레스트', 경기도 '광교산 더샵 퍼스트파크', 인천 '검단신도시 예미지트 리플에듀' 등이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주에 전국 14곳에서 총 7517가구(오피스텔·임대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1순위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6곳, 계약은 16곳에서 진행된다. 견본주



11일 청약 '르엘 신반포 센트럴' 조감도.

/리얼투데이

택은 전국 9곳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1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23-19 일대에 들어서는 '전주 태평 아이파크'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태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인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규모다. 총 1319가구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104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美·中 무역협상 호재... 韓·中펀드 활짝

주간 펀드동향

주식형 펀드 수익률 상승세 채권형은 1010억원 순유출

미·중 무역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이 중국과 한국 주식시장에 모두 호재로 작용했다. 채권형펀드는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한주간(11월1~7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2.92% 상승한 2144.29포인트에 마감했다.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중국의 양호한 경제지표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MSCI)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1.49%,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EM 지수는 전주 대비 3.03% 상승했다.

한 주간 국내주식형펀드는 2.78% 올랐다. 모든 유형이 상승한 가운데 인덱스주식기타(3.16%) 유형이 크게 올랐다. 자금도 순유입되면서 순자산은 2조 2540억원 늘어났다.

해외주식형은 1.86% 상승했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중국이 3.25%로 수위를 기록했고, 중화권(3.09%), 베트

남(2.58%) 등이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주에 이어 자금은 순유출되면서 순자산은 338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시중자금을 무섭게 끌어갔던 채권형펀드는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8월 역대 최저점을 찍었던 채권금리가 최근 반등세를 보인 영향이다.

국내채권형펀드는 한 주간 0.12% 내렸다. 101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해외채권형펀드는 0.0% 보험세를 기록했지만 자금은 140억원 빠져나갔다.

/손영지 기자